


오늘의 **게시판**

행사 (20일)
 ▲URC 로봇 시범서비스 시연회=오전 11시 광주시청 1층 행정홀.
 ▲전남도내 입주기업 대표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오후 2시 보성군 다비치 콘도. 22개 시·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및 도내 기업 200여개 업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
 ▲동산 소화천 준공식=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운림동 동산 소화천.
 ▲홍우·홍돈 육질특성 연구 중간보고회=오후 2시 진도군청 상형실. 순천대 양철주 교수가 분석 연구서 발표.
 ▲'여성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관련 포럼=오후 3시 여수시청 상형실. '디지털 시대와 여수지역 문화'라는 주제로,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이 '여성 향토문화와 디지털화 전략', '디지털'

URC 로봇 시범서비스 시연회 오전 11시 광주시청 1층 행정홀

거북선 캐릭터 콘텐츠 사업의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주제 발표.
 ▲제 88회 전국제전대회기 환영행사=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토지정의 실현과 바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제 1회 토지학교=오후 7시30분 조선대 본관 남쪽 4층 다목적세미나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토지불로소득은 한국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다'는 주제로 강연.
 (21일)
 ▲제 9회 전남대 여성대회=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홀 2층 대강당. '출산은 국력이다'는 주제로 1천여명 참석 예정.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20~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조현영·문재연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20일

(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 12회 광신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21일(화)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 3회 청소년 드림페스티벌=21일(화) 오전 9시30분 전남대 여수캠퍼스 실내체육관. '자유,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여수지역 고 3학생 2천여명 참여 예정.
 ▲어린이 인형극 공연=21일(화) 오전 10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진도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알코올의 피해와 영향에 대해 '오군이의 생일 잔치',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인형극으로 설명.
 ▲국제환경 사진전=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 '물 오르다'라는 주제로, 물의 역사·문화·미학·사회화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
 ▲선묵회전=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광주일보가 실시한 37·38회 뉴스퀴즈 추천 결과, 최석희 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최씨는 19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37·38회 뉴스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07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김노근 경사와 김병철 경사가 임해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최석희·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2등 ▲김철주·광주시 서구 관천동

뉴스퀴즈

39. 한국 피겨 선수가 2006-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피겨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 한국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김연아 ②진선유 ③변천사 ④남나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자>
 37회 - ① 이승엽, 38회 - ① 민주당

함께 풀어봅시다 < 228 >



→ 가로풀이

1.흔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줄여 사용하는 말. 3. 나라의 경사를 기법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등이 있다. 6.보통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것. 7.우주를 뜻하는 하나의 원을 양과 음으로 이등분해 양은 붉은 빛으로 음은 남빛으로 된 고리 모양의 무늬가 그려진 부채를 이르는 말. 9.팔강과 파랑을 혼합한 중간색. 11.사람이나 짐승이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양들은 ~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13.밭의 경치를 이르는 말. 14.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할. 또는 막연히 나타나는 안정되지 않은 정서적 상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이다. 15.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지속돼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이나 소멸이 일어나는 기간. 또는 어떤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가 소멸되다. 16.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 전국의 중고 대학생 및 ~ 등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실시했다. 17.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은 몹시 떨리고 있었다.

↓ 세로풀이

2.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하였을 때 서술어가 취하는 형식. ↔수동태. 3.국가 사이의 통신 교환이나 항공,선박,철도 등의 교통편에 이용하는 항로. ↔국내선. 4.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일. 날씨 상태를 시간에 따라 그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5.병의 입구나 구멍 등에 끼워서 막는 물건. 8.아주 비밀로 하는 가운데. 공작을 ~에 추진하고 있다. 10. 색깔이 있는 렌즈를 끼운 안경. 또는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어 좋지 아니하게 보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을 누림. 공무원들의 ~한 태도가 그 재난을 초래하게 한 원인이다. 12.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또는 그 울부짖는 소리. 13.낮에는 쉬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의 습성. 부엉이는 ~ 동물이다.

▶<같이 풀어봅시다 227회 정답>

15.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부인.

▲지난주 정답자
 김미라·광주시 북구 용봉동
 박진섭·광주시 동구 지산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바둑소식

야마시타 케이고 9단이 최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54기 일본 왕좌전 도전 5경기 제2국에서 타이틀 보유자인 장쉬 9단에게 307수 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 1집 반승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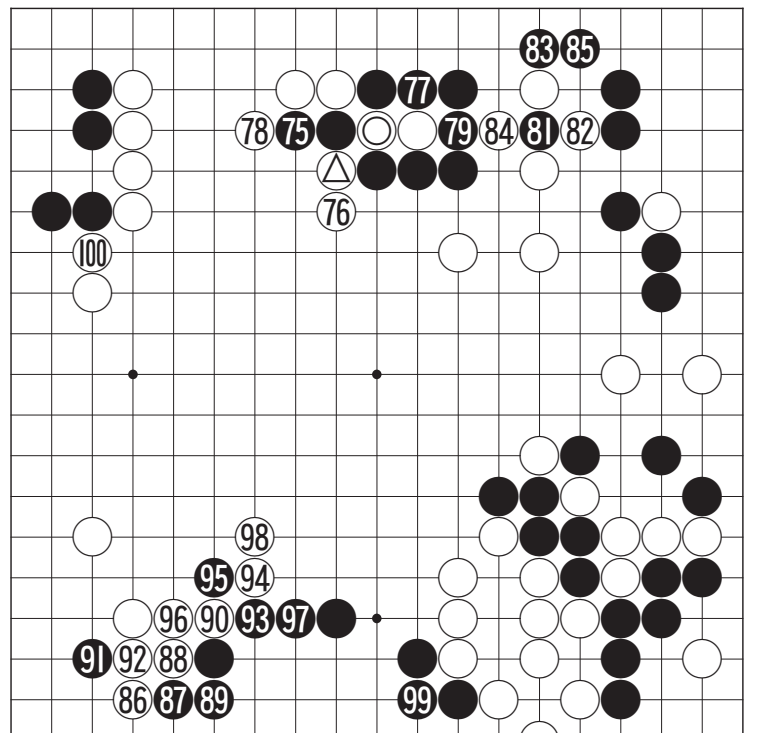
이날 승부로 1승씩을 나눠가진 두 기사는 30일 일본 야마가타에서 제 3국을 치른다.

장 9단으로서는 최근 다카오신지 9단에게 일본 3대 타이틀인 명인타이를 빼앗긴 뒤 치르는 명예회복전이다. 그는 왕좌, 기성, 용성전, 아함동산배 타이틀 보유자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자 4시간으로 진행되며, 우승상금은 1천350만원(한화 1억8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손해본 득수 6보(75~100)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正 5단이 준비한 독수 흑 75로 늘었다. 79로 따내면 80으로 먹여치워 이것으로 집을 없애면서 봉쇄하는데는 백이 손해. 게다가 박 5단은 이미 사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흑 81로 깨우고 83으로 넓은 수가 깔끔한 수로, 이제까지의 백의 노고 가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다. '참고도'의 흑 1로 남으면 백 2 이하 12까지 백이 상반에서 사는 수가 있다. 그래서 81로 희생타를 날리고 실전처럼 넘는 것이 정수다. 백이 순식간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제는 백이 잡부족 양상,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중앙이 두텁다는 데 있다. 백 86으로부터 98까지 결정하고 100으로 막은 것이 두터운 수다. 이제는 중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승부다. 80-0.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제15회 광일제 광주·전남 직계비록대회



정 5단 이 준비한 독수 흑 75로 늘었다. 79로 따내면 80으로 먹여치워 이것으로 집을 없애면서 봉쇄하는데는 백이 손해. 게다가 박 5단은 이미 사 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흑 81로 깨우고 83으로 넓은 수가 깔끔한 수로, 이제까지의 백의 노고 가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다. '참고도'의 흑 1로 남으면 백 2 이하 12까지 백이 상반에서 사는 수가 있다. 그래서 81로 희생타를 날리고 실전처럼 넘는 것이 정수다. 백이 순식간에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제는 백이 잡부족 양상,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중앙이 두텁다는 데 있다. 백 86으로부터 98까지 결정하고 100으로 막은 것이 두터운 수다. 이제는 중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승부다. 80-0.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779>

I was thinking exactly the same thing
 나도 똑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A: Let's call it a day. We've done enough today.
 B: Did you read my mind? I was thinking exactly the same thing.
 A: Good! Let's go out and have a drink.
 B: Good idea!

A: 오늘은 그만 합시다. 오늘은 정말 일 많이 해냈네요.
 B: 내 마음을 알아차리셨나. 나도 똑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A: 잘됐네요! 나가서 한잔합시다.
 B: 그거 좋지요!

(Let's) call it a day. = Let's call it a quit (for the day)
 : <구어>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자 그만하자'
 read one's mind : (마음을) 읽다, 알아차리다
 - read a person's thought : (~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go out and have = go out to hav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79>

いただきます
 잘 먹겠습니다

A: さあ、どうぞ。
 B: いただきます
 A: たくさん たべてね。
 B: おいしそう

A: 어서, 들어
 B: 잘 먹겠습니다
 A: 많이 먹어
 B: 맛있겠다

~~そう는 ~~인 것 같다는뜻
 うつくしい(아름답다) : うつくしう(아름다울 것 같다)
 あまい(달다) : あまそう(달 것 같다)
 あつう(따뜻하다) : あつそう(따뜻 것 같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97>

窩囊
 최고도에 달하다, 완속해지다

A: 你这话, 做得不够窝, ... 窝囊得厉害。
 Ni zhe hua, ni zuo de bu gou wo, yi ban zhi shao de meiyou. Ni zhe hua zuo de bu gou wo, yi ban zhi shao de meiyou.
 B: 窝囊得厉害, 窝囊得厉害了。
 Wo nang de li hai, wo nang de li hai le.
 A: 不行, 还得重来。
 Bu xing, hai de chong lai.
 B: 好, 这次我会保重。
 Hao, zhe ci wo hui bao zhong.
 A: 窝囊과 이 뜻은 완속해지거나 완속하게 되거나 뜻이다.
 B: 窝囊과 이 뜻은 완속해지거나 완속하게 되거나 뜻이다.

窩囊 (wo nang) : 완속해지거나 완속하게 되거나 뜻이다.
 窝囊 (wo nang) : 완속해지거나 완속하게 되거나 뜻이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97>

土亭秘訣 (토정비결)
 흙토, 정자 정, 숨을 비, 이별할 결

토정비결(土亭秘訣)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菴·1517~1578)이 지은 책이다. 이지함은 서경덕(徐敬德·1489~1546)의 제자로 천문(天文), 지리(地理) 등 여러 학문을 공부하였다. 그가 마포 강가 언덕에 흙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토정선생이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운수(運數)를 봐 달라고 졸라 한두 사람 봐주다가 이윽고 소문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그는 간단한 방법으로 1년의 운수를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유랑길에 나섰다 한다. 사람들은 이 책을 그의 호를 따서 '토정비결'이라고 불렀는데, 비결(秘訣)이란 미래(未來)의 일을 암시하거나 장래의 길흉(吉凶)·화복(禍福)을 비밀스럽게 기록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그 후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토정비결을 펴보고 그 해의 운수를 짐작하고, 모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택일(擇日)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나들이하고, 이사하고, 집을 짓고, 장을 담고, 길쌈을 할 때도 날을 잡았다. 이것은 미신(迷信)적 면모 있지만, 아울러 계절과 하는 일에 따라 불편을 주지 않는 날을 잡으려고 노력한 합리성도 있다.

<한에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